

예보광장

2024 AUTUMN+WINTER VOL.55

예보광장

2024 AUTUMN+WINTER
VOL.55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MAGAZINE

 예금보험공사

예보광장
2024 AUTUMN+WINTER VOL.55

 예금보험공사

발행일 2024년 12월 13일 발행인 유재훈 발행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 02-758-0114 팩스 02-758-0040 디자인·제작 문화공감 02-2266-1897

Contents



04

KDIC가 합니다 1

김동훈 선수 출전, 파리 패럴림픽 응원기

08

KDIC가 합니다 2

사찰에서의 하루, 마음의 평화를 찾다
법륜사 템플스테이

14

여기는 KDIC

청계천칼럼 퀴즈쇼
현장을 가다

18

KDIC CLUB

축구를 사랑한다면 누구든 환영!
예보 축구동호회의 축구대회 출전기

22

KDIC GLOBAL

형제의 나라하면 튀르키예? '몽골'도 있다!
한·몽 양국간의 뿌리 깊은 교류 이야기

24

2024 GTP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 직원들 한자리에 모이다
제10회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최

26

KDIC ZOOM IN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3년간의 성과

28

KDIC TOGETHER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디딤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

CULTURE TREND

“라면, 먹을까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에 대하여

34

INTERVIEW

법과 원칙 기반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철 상임감사

36

KDIC&NFFC

빛이 나는 콜라보
예금보험공사 ♥ 수협은행

37

NEW FACE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2024 상반기 신입직원

38

KDIC NEWS

2024년 하반기 KDIC NEWS

42

시사 카툰

카페인이 각성시킨 경제와 금융

44

with KDIC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임직원 이야기 나눔

예보광장 독자 설문조사

〈예보광장〉은 독자 여러분과 호흡하며 더 나은 예금보험공사 사보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사보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24일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참여하기





김동훈

©홍보실 김대원 인턴 제작(그림)

김동훈 선수 출전 파리 패럴림픽 응원기

예금보험공사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하여 시각·청각 장애인 유도선수 7명을 채용해 유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예보에 입사한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선수들은 경기력이 향상되어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김동훈(시각, J2, -73kg) 선수는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동훈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파리로 떠난 '패럴림픽 응원 원정기'를 소개한다.

글 인사지원부 김청수 책임역



김동훈 선수 패럴림픽 출전!

“김동훈 선수 패럴림픽 진출 확정입니다!” 서울시장애인유도협회의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도의 경우 IBSA(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International Blind Sports Federation) 세계랭킹 기준으로 8위 이내에 들어야 패럴림픽 출전이 가능한데, 예금보험공사 소속 김동훈(시각, J2, -73kg) 선수의 경우 랭킹이 10위권이어서 패럴림픽 개최 직전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출전이 늦게 결정된 만큼 응원계획 수립, 홍보영상 촬영준비, 지면광고·보도자료 배포 및 기고문 작성, 대한장애인체육회 면담 추진 등 준비할 게 많았다. 하지만 그를 파리에서 응원할 수만 있다면 야근이 대수라. 그렇게 신두식 이사, 김청수 책임역, 배영기 영상홍보역으로 구성된 ‘패럴림픽 응원 원정단’은 파리로 향했다.

‘파라 팀코리아 하우스’ 방문, 대한장애인체육회 면담

15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파리에서의 첫 일정은 ‘파라 팀코리아 하우스’ 방문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면담이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파리 패럴림픽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김동훈 선수의 지면 광고용 사진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파리 현지에서 열리는 ‘파라 팀코리아 하우스’에도 예보를 초청해 주었다.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 행사장 ‘스포츠외교 라운지’에서 실시한 면담에서 신두식 이사는 예보의 장애인 유도팀 창단 경과와 성과를 소개하고, 장애인 선수 채용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선수 참관단장도 예보의 장애인 스포츠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로부터 '파라 팀 코리아 하우스' 행사 취지 및 주요 전시 프로그램을 직접 안내 받고, 휠체어 레이싱 등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해 보았다. 행사장에는 프랑스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파라 팀 코리아 하우스란?

장애인 체육 홍보와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도시에서 한국 문화 전시 및 장애인체육 체험을 부대 운영
▶ 파리 시민 등 일반 참가자 대상의 오픈형 코리아하우스(1층)와 IPC 및 각국 장애인체육회 대상의 스포츠외교 라운지(지하 1층)로 구분 운영



파라 팀 코리아 하우스 소재 건물 외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드디어 경기 시작! 김동훈 파이팅!

드디어 결전의 날! '김동훈 선수가 잠은 잘 잤는지, 음식은 입에 맞았는지...'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비장한 마음으로 경기장을 찾았다. 이날은 예보의 권석진 책임역, 김경민 책임역, 지명환 책임역, 송상우 선임조사역이 글로벌 연수 중임에도 시간을 쪼개어 합류하여 더욱 든든하였다.

유도 경기가 열리는 Champ de Mars Arena는 크기와 웅장함이 가히 압도적이었다. 경기장 규모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매우 열정적이었다. 패럴림픽은 각국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지만, 동시에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관중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열띤 경기를 펼친 선수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은 우리뿐인 것 같아 김동훈 선수에게 조 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김동훈 선수에게도 필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16강전 vs IBANEZ BANON Sergio(스페인, 6위)

16강 첫 경기 상대는 스페인의 IBANEZ BANON Sergio 선수(랭킹 6위)였다. 그는 김동훈 선수(랭킹 8위)보다 랭킹도 높았고, 이전에 김동훈 선수를 이긴 경험이 있어 더욱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하지만 김동훈 선수는 부담감을 잘 이겨내고 점전 끝에 절반으로 승리하며 값진 첫 승을 거두었다. "장하다, 김동훈!" 당초에는 1승만 해도 충분히 대견하고 만족스러울 거로 생각했지만, 사람인지라 메달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8강전 vs BAREIKIS Osvaldas(리투아니아, 4위)

BAREIKIS Osvaldas(리투아니아, 랭킹 4위) 선수는 강했다. 김동훈 선수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지만, 장장 6분이 넘는 연장전 끝에 아쉽게 절반으로 패배하고 말았다. 비록 패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위랭커와 대등한 점전을 펼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다. 바로 패자부활전!

여기서 잠깐!

패럴림픽 유도 경기 방식

< 경기 방식 >

패럴림픽 유도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체력 소모가 심하고 대진운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는 격투 종목 특성상 실력 있는 선수의 초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패자부활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8강전에서 탈락한 4명의 선수가 패자부활전을 치른 후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2명이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한다. 이 2명과 준결승전의 패자 2명이 맞붙어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즉, 유도에서는 동메달 수상자가 2명(공동 3위)이며, 동메달 결정전 패자 2명이 공동 5위, 패자부활전 패자 2명이 공동 7위로 기록된다.

< 연장전 >

연장전은 Golden score 룰을 적용하여 시간제한 없이 승부가 날 때까지 진행한다.

패자부활전 vs CHANGS Shao-Hao(대만, 18위)

"김동훈 화이팅~~ 우와!!" CHANGS Shao-Hao(대만, 18위) 선수와의 승부는 응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김동훈 선수가 경기 시작 22초만에 업어치기 한 판승을 거둔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랭킹의 차이가 곧 실력 차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선 16강전을 승리한 그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동메달 결정전 vs KURANBAEV Uchkun(우즈벡, 5위)

한 번만 더 이기면 동메달! 선수가 느끼는 중압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너무 체력을 많이 소모한 탓일까. 점전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절반으로 패하고 말았다.

김동훈 잘했다!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에필로그 나란히 함께하는 승리

최종 순위 5위. 아쉬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가 그동안 흘린 피·땀·눈물에 대한 감동과 경의였다. 예보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축제의 장에서 모두가 승리자였다.

예보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동훈 선수가 4년 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금빛 업어치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경기결과

경기	경기결과	상대선수(국적) / 세계랭킹
16강전	승(절반)	IBANEZ BANON Sergio(스페인) / 6위
8강전	패(절반)	BAREIKIS Osvaldas(리투아니아) / 4위
패자부활전	승(한판)	CHANGS Shao-Hao(대만) / 18위
동메달 결정전	패(절반)	KURANBAEV Uchkun(우즈벡) / 5위

경기현장
영상보기



사찰에서의 하루, 마음의 평화를 찾다 법륜사 템플스테이



사진 왼쪽부터 해외재산회수TF 윤가하 차장, 예금보호정책부 한채령 인턴, 예금보호정책부 오혜진 인턴, 정보보호실 문지은 선임조사역,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 인사지원부 신용제 팀장



템플스테이
영상보기



전각 안에 봉안된 석불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법륜사 본존불

법륜사에 모인 자혜로운 여섯 명

용인시 처인구 문수산에 위치한 법륜사는 상륜 큰스님이 1996년 서울 삼각산 승가사에서 정진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현몽하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5년에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에 창건한 사찰이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보전, 관음전, 조사전, 삼성각, 범종각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 예금보험공사 6인이 찾아왔다. 저마다의 이유는 달랐지만, 하나같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인사지원부 신용제 팀장, 해외재산회수TF 윤가하 차장, 정보보호실 문지은 선임조사역,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 예금보호정책부 오혜진·한채령 인턴이 그 주인공들이다. 회사가 아닌 호젓한 자연 속에서 가을 햇살을 만끽하는 그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자혜로움이 충만했다. 잠시 후 사찰 수련복으로 환복한 그들이 여여당에 모였다.

“최근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식습관 때문인지 폴립을

3개나 제거하는 시술을 했어요. 대장에 채식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채식도 경험하며 비움을 실천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조민서 주임. 이어서 윤가하 차장은 “제가 동물 친구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중에 달팽이도 있는데,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헤어질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고, 달팽이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니만큼 극락왕생을 빌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들 모두는 부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법륜사 템플스테이 진행자가 사찰과 사찰 예절, 그리고 절하는 법을 안내하자 그들의 눈빛이 빛났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몸에 배도록 동작을 따라 하며 집중했다.

대웅전 본존불, 경건함에 스며들다

여여당을 나와 본격적으로 사찰 탐방에 나섰다. 첫 번째 장소는 대웅전이었다. 법륜사 대웅전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건축물로, 일반 사찰과는 다른 아(亞)자 복개형 구조를 자랑한다.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겹겹이 퍼져 나가듯, 부처님의 진리도 그와 같이 무한히 퍼져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물이다.

진행자를 따라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자, ‘아~’ 하는 깊은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본존불에 압도된 것이다. 대웅전 본존불은 항마촉지인상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53톤의 단일 석상 황등석으로 조성된 16척의 장육상이다. 이 본존불은 전각 안에 봉안된 석불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본존불을 먼저 모시고 난 후 대웅전을 건축한 이유도 그 크기와 위엄에서 비롯된다고 전해진다.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본존불 앞에서 그들은 자연스레 더 겸손해짐을 느낀다. “이렇게 큰 석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웬지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문지은 선임 조사역이다.

대웅전을 나와 용수각 앞에 빙 둘러섰다. 용수각은 예로부터 영험한 샘물로 알려진 약수터로, 1996년 당시 상륜

(좌) 법륜사 약수를 마시는 신용제 팀장
(우) 저녁공양을 체험하는 참가자들



큰스님이 꿈에서 본 바로 그 자리터이다. 물맛이 좋고 건강에 이롭다는 진행자의 말에 신용제 팀장이 가장 먼저 약수를 받아 마셨다. “정신이 번쩍 드네요. 마음속까지 시원해집니다.”

돌계단을 따라 사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삼성각으로 향했다. 푸른 기와와 살며시 내려앉은 늦가을 노을이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삼성각에 들어간 명씩 기도를 올린다. 나와 가족, 동료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그들이다. 부디 소원성취하길.

또다른 수행, 공양을 체험하다

오후 5시, 저녁공양 시간이 되었다. 절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수련이자 수행의 한 과정이다. 차례로 자신이 먹을 만큼만 덜어 공양을 시작했다. 평소라면 생각 없이 남겼을 반찬들도 남김없이 먹고, 식기도 직접 씻어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비록 스님들과 함께하는 발우공양은 아니었지만, 사찰에서의 공양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절에서 돈가스를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콩고기로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맛있었어요.”라는 윤가하 차장과 “엄청 맛있었어요. 삼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도 적당했고 재료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한채령 인턴이다. 신용제 팀장은 설거지 체험까지 덤으로 하며 의미 있는 공양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법륜사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저녁예불에 앞서, 범종각에서 타종하기 위해 모였다. 타종은 어류종생의 해탈을 비는 목어, 조류종생의 해탈을 기도하는 운판, 땅에 사는 인간과 동물의 해탈을 기원하는 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세계 중생들의 해탈을 비는 범중순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 여섯 명은 차례로 범종을 치고, 그 진한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깊은 울림이 사찰 안에 퍼지자 고요한 평화가 흐르는 듯했다.

“감동입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족들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떠오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울림이 있네요.” 신용제 팀장은 깊어진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저녁예불을 위해 대웅전으로 향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여섯 명은 스님을 따라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며,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다.



(좌) 타종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참가자들
(우) 한 사람도 빠짐 없이 108배 수행을 마쳤다

108배와 자비명상, 나를 돌아보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다시 여여당에 모여 108배와 자비명상 의식을 진행했다. 108배는 불교에서 108가지 번뇌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수행으로, 수행자들은 진심어린 기도와 참회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일체감을 얻는다. 사실 여섯 명의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참여 전부터 108배가 제일 걱정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윤가하 차장을 제외하고는 108배 경험이 없었다고 했다. 스님께서 108배의 의미를 말씀하시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며 천천히 하나씩 해 볼 것을 권했다. 그렇게 108배가 시작되었다.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성품을 다스리며 절합니다.… 지금 올린 108배가 모든 생명에게 지혜와 자유의 씨앗되기 바라며 절합니다.’ 40분 가량의 시간이 흘렀을까, 108배를 마쳤다. 무릎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신용제 팀장도 끝끝내 108배를 마쳤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듯 108배도 1배만 하면 성공한



고요 속에 108배 수행을 이어가는 참가자들



108배 수행을 마치고 자비명상 중인 윤가하 차장과 한채령 인턴

다는 스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

“첫 절을 했을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점차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후배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이 되었어요.”라고 신용제 팀장이 말했다. “108배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 배 한 배마다 기도문을 곱씹으며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오혜진 인턴이 전했다.

108배를 마친 후 과거와 미래를 해매는 마음을 이 순간의 나에게로 가져오는 자비명상 시간을 가졌다. 붓다 불의 따뜻한 울림이 여여당에 퍼지고, 여섯 명은 눈을 감고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 타인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조민서 주임,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자비명상을 통해서 평범한 저를 만날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



새벽 4시 20분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는 참가자들

니다.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한채령 인턴의 명상 참여 소감이 이어졌다. 자비명상을 끝으로 오늘의 체험은 끝났다. 보통날 같았다면 한창 불금을 즐겼을 시간이겠지만, 오늘만큼은 충만한 자비와 평화를 안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다시 찾은 ‘나’

사찰의 하루는 속세보다 일찍 시작된다.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 4시에 여섯 명의 참가자들은 대웅전에 모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다. 어제 저녁에

불과는 또 다른 사뭇 진지한 모습이다. 예불을 마치고 나오니 어슴푸레한 어둠을 뚫고 서서히 오늘의 해가 떠오른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맞이하는 여섯 명의 마음에는 벅찬 감동이 차오른다. “인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 경험을 살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진 인턴이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 꼭 이루어지길.

참가자들이 108배를 올렸던 여여당에 모였다. 따뜻하고 고요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붓다불 명상과 바디스캔 명상 시간을 가졌다. 어느새 자유롭게 이완된 몸과 마음에서 평화를 느낀 참가자들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평상시라면 ‘아침’을 즐겼을 토요일이지만, 오늘은 이른 아침공양을 한다. 남김없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어진 음식을 깨끗이 비웠다.

잠시 주어진 휴식시간. 인근 농촌테마파크로 산책을 나선 여섯 명.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적당히 차가운 아침 공기에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으는 그들이다. 산책을 마치고 다시 스님과 마주 앉아 속세의 번민을 이야기 나누는 차담 시간을 가졌다. 과거와 미래를 해매는 내가 아닌, 온전한 나를 바라본다. 나를 만난다. 오늘 하루는 더 괜찮은 내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템플스테이를 마친다.



스님과 차담을 하며 깨우침을 얻고 있다

청계천칼럼 퀴즈쇼 현장을 가다

예금보험공사는 유튜브 채널 예보TV를 통해서 ‘청계천칼럼’을 론칭 중이다. ‘청계천칼럼’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차현진 이사가 6월부터 금융·경제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2024년 ‘청계천칼럼’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청계천칼럼 퀴즈쇼’가 진행되었다. 뜨거운 접전이 펼쳐졌던 현장스케치를 함께 공유한다.



청계천칼럼 퀴즈쇼
현장스케치 영상보기



AM 8:00
퀴즈쇼 시작

지난 11월 29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는 새벽부터 불을 밝히고 있었다. 청계천칼럼 퀴즈쇼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전 7시가 되자 차현진 이사를 비롯한 4명의 참가자인 IT전략운영부 윤경창 책임역과 이라희 조사역,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임주영 선임 조사역, 은행리스크관리부 이창민 선임조사역이 도착했다. 쌀쌀한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다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마이크 테스트 등 리허설을 마친 후 드디어 청계천칼럼 퀴즈쇼를 알리는 ‘큐’ 사인이 떨어졌다. 오늘 진행은 이해성 아나운서가 맡았다.

첫 순서로는 몸풀기 문제가 진행되었다. 이 문제로 ‘버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피드가 중요한만큼 어떤 버저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버저 선택으로 주어진 첫 번째 문제는 “비 중에 가장 나쁜 비는?”이었다. 보기로는 ①고소비 ②구소비 ③그소비 ④과소비가 주어졌다. 예상 밖의 문제와 보기에 다들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윤경창 책임역이 빠르게 정답을 외쳤다. “4번 과소비입니다!” “정답입니다!” 그의 선택은 탁상종. 이어서 세 문제를 더 풀고, 임주영 선임

조사역은 벨을, 이창민 선임조사역은 닭 모양 인형을, 이라희 조사역은 캐스터네츠로 버저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퀴즈쇼가 시작되었다.



AM 10:40
짜릿한 대결의 묘미

청계천칼럼 퀴즈쇼는 짝기, 눈치보기, 말하기, 짝짓기의 4개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영역별로 4문제가 출제되며, 문제에 따라 미소스티커가 주어진다. 가장 많은 미소스티커를 모은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된다. “돈과 금융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미리 관련 도서도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실력을 발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출제위원이자 문제해설사로 함께한 차현진 이사의 응원 메시지가 있었다.

이해성 아나운서가 짝기 영역 첫 번째 문제를 제시했다. “이름을 통해서 나라를 표시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윤경창 책임역이 빠르게 정답을 맞췄다. 보기 중 정답은 ①번 Bank of America. 관련해서 차현진 이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첫 번째 Bank of America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민간은행입니다. 다른 은행들은 각 나라에 하나만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참석한 네 명이 “아~”하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 영역이 시작되었다. OX퀴즈로 진행되며, 정답률은 50%. 먼저 버저를 누른 자가 틀리자마자 빠르게 버저만 누른다면 미소스티커를 손쉽게 얻을 절호의 기회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마지막 문제에서 웃음폭탄이 터지고 말았다. 제시된 문제에 윤경창 책임역이 X를 말했고, 정답이 아니라는 이해성 아나운서의 안내에 따라 임주영 선임조사역이 빠르게 버저를 눌러 정답을 외쳤다. 자신만만하게 “정답은 X입니다!” 순간 스튜디오에 정적이 흐르고 이윽고 상황을 인지한 임주영 선임조사역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선 답을 잘 듣지 못한 임주영 선임조사역의 황당한 실수로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드디어 마지막 영역인 짝짓기 영역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틀리면 벌어놓은 미소스티커를 반납하게 되어서 옆치락뒤치락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과연 누가 최종 1등을 차지했을까? 앞으



로 공개될 예보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한편, 이날 퀴즈쇼에 참석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임주영 선임조사역은 “주변의 훌륭한 선배님들과 동료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사님과 함께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창민 선임조사역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퀴즈도 풀어보고 금융 지식 테스트도 하면서 정말 즐겁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경창 책임역은 “오늘 퀴즈를 통해 자기 자신만 믿고 함부로 투기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입사원 이라희 조사역은 “선배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고, 이사님의 설명이 유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칼럼을 이끌어온 차현진 이사는 “오늘 퀴즈쇼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첫째,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의 사례와, 둘째,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드린 것 같아 재미와 교양이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퀴즈쇼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그동안 예보TV에 소개되었던 청계천칼럼 주요 내용이다.

큐알코드를 찍으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혁을 꿈꾸었지만 결국은 비참한
결말은 맞이한 천재 학자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농암 유수원의 우서(滄書) ©한국학중앙연구원

비운의 천재 실학자 농암 유수원

2024년 9월 13일

지난 9월 13일 업로드된 청계천칼럼은 ‘비운의 천재 실학자 농암 유수원’ 편이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 농암 유수원의 혁신적인 경제사상과 그의 업적을 조명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유수원이 제시한 세금제도와 농업 생산성 향상, 사회개혁 사상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유수원은 당대의 세금제도와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며, 소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현대의 세금 시스템과 유사한 개혁안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가진 만큼 세금을 부과하자”는 공평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차현진 이사는 유수원의 경제이론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고,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 당시의 신분제도 및 정부조직 개편, 재정개혁 등을 담은 유수원의 유일한 저서 <우서>를 소개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시대를 통찰하며 현실을 직시한 그의 새로운 시선과 생각은 세계사적인 천재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운의 천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예보의 아버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아버지

2024년 10월 11일

‘예금보험공사의 아버지’ 편에서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영상은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그것을 이끈 인물들,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차현진 이사는 예금보험제도의 첫 기록이 1980년대 한국은행의 해외 자료조사에서 발견되었음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시작된 예금보험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한다. 이후 1995년 2월 200년 전통의 영국 베어링스 은행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특히,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와 함께 도입한 예금보험제도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평가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아버지’ 영상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위기 이전에 도입된 유일한 사례로, 당시 국가와 금융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이를 가능하게 한 지도자들의 비전과 용기에 대해 조명했다. 차현진 이사는 격동의 시대에 보통사람의 문민정부가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제도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번 영상을 통해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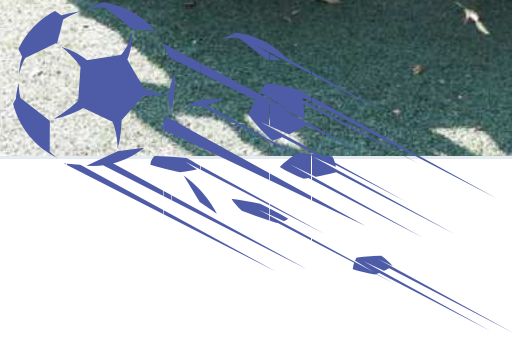
“오늘 여러분께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계의 응급실! 예금보험공사입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융계의 응급실! 예금보험공사입니다’ 편에서는 금융버블과 금융위기의 역사를 탐구하고, 한국 경제가 겪은 주요 위기들을 분석한다. 금융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붕괴되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17세기 네덜란드 툴립버블, 18세기 영국 남해회사버블, 프랑스의 미시시피버블 사례를 통해 풀어내고, 이들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탐욕이 아닌 국가 정책의 실패와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1873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루며, 산업혁명과 함께 국가 간 경제적 연결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서막이 열렸다고 설명한다. 한국 경제의 금융위기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첫 번째 금융위기는 사채시장에서의 ‘계 파동’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며, 이후 국제파동, 1980년대 증시파동, 1997년 IMF 위기를 차례로 다룬다. 차현진 이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시기 동안 많은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시스템을 복구한 점을 강조한다. 단순히 5천만원 지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버블과 금융위기,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대응에서 예금보험공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설명하며, 이를 기억해 주기를 당부했다.



축구대회 출전기
영상보기



축구를 사랑한다면 누구든 환영! 예보 축구동호회의 축구대회 출전기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과 인조1·2구장에서 제8회 금융위원장배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가 열렸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금융인의 축구 잔치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오래 기다린 만큼 예선부터 결승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3개 기관이 새롭게 참가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축구를 사랑하는 금융인이라면 손꼽아 기다리는 ‘금융계 월드컵’

‘금융계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 ‘금융위원장배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는 2012년 제1회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인 올해 8회차를 맞았다. 대회의 막을 연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총 16개 기관이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제안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경제 현안을 거론할 때도 자주 축구에 비유할 정도로 금융계에서는 열성 축구팬으로도 유명했다. 이후 대회에 참가하는 기관이 점차 늘었고 2024년에는 한국은행,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3개 기관이 새롭게 합류해 총 25개 기관, 24팀이 경기에 참여했다. 그렇게 제 8회 축구대회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5년의 휴식기를 거쳐 열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금융위원장배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는 8회차로 이어져 오며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경쟁을 펼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축구동호회장이기도 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 개최사를 통해 “축구는 강인한 체력, 끈끈한 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와 우리 금융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짜릿한 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다!

경기는 오전 예선과 오후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예선에서는 24개 팀을 4팀씩 6개 조로 나누어 경기를 펼쳤고, 각 조 1, 2위 팀은 1부 토너먼트로, 3, 4위 팀은 2부 토너먼트로 진출했다. 예선 결과를 반영한 각 토너먼트는 12개 팀씩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중 4팀은 제비뽑기를 통해 부전승으로 8강에 올랐다. 나머지 8팀은 승패를 가린 후, 승리한 팀이 8강에 진출했고, 이어서 4강을 거쳐 결승에 진출했다.

예보 축구동호회는 오전 8시에 예선전 첫 경기를 치렀다. 경기 초반부터 탄탄한 수비와 깔끔한 패스로 서울보증보험에 맞섰으나 아쉽게도 패배했다. 그러나 곧 반전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 치러진 금융보안원과 경기에서 예보 축구동호회는 뛰어난 조직력을 앞세우며 경기를 리드해 나간 것이다. 그러다가, 후반전 마지막 순간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승리의 주역인 이은빈 선임조사역은 “5년 만에 재개되는 축구 대회에서 첫 골의 주인공이 되어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팀 공격수들이 압박을 정말 잘해줘서 상대 팀 골키퍼의 실책을 끌어낼 수 있었고요. 임흥현 선임조사역의 깔끔한 패스 덕분에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예선 마지막 경기 상대는 한국거래소였다. 팽팽한 접전 끝에





경기 후반, 아쉽게도 한 점을 내어주고 말았다. 1승 2패를 기록한 예보 축구동호회는 2부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다. 경기를 이동하는 동안 예보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2부 토너먼트에서 우승 한 번 해보자.”고 서로를 다독이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역전 드라마는 없었다! 하지만 선후배가 함께해 더 의미 있었다!

조 예선 3위로 2부 토너먼트에 진출한 예보 축구동호회는 축구를 뜨겁게 달구는 휘슬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과 본선 경기를 시작했다. 양 팀 모두 뛰어난 스킬과 전술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으나, 상대 팀에 골을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후반전 끝



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한 예보 축구동호회에서 한 골을 터트렸다. 본선에서 골을 터트린 슈팅 스타 임흥현 선임조사역은 “경기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팀이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수비 쪽에서 제게 계속해서 공을 패스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집중해서 골키퍼와 주변 상황을 지켜봤는데, 골키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반대편을 향해 슛을 날렸습니다. 그게 운 좋게 골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날카로운 슛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종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경기를 마친 뒤 예보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축구대회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현태 선임조사역은 경기를 마친 후 “큰 대회에 나와 다른 기관 직원분들과 경기를 해볼 수 있어 정말 재미있었고요. 한 번 뛰어보니까 앞으로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임흥현 선임조사역은 “친구가 아닌 직장 선후배, 동료분들과 같이 이렇게 규모가 큰 축구대회에 참가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라면서 동호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예보 축구동호회는 능동적으로 쉬는 사내 공동체!

예보 축구동호회의 역사는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축구를 좋아하던 예보 직원들이 하나, 둘 모여 축구 경기를



즐기던 것이 자연스럽게 사내 축구동호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선후배, 동료끼리 친목을 다지며 건강한 여가 활동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동호회에 등록된 회원만 62명이다. 실제 모임과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만 해도 30명이 넘는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예보에 입사한 직원 중 20여 명이 축구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지금 예보 축구동호회는 젊은 에너지로 가득하다. 특히 김용선 수석책임역은 “동호회에 젊은 직원이 많이 늘어 세대교체가 참 잘 된 것 같아 기분 좋고요.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라며 이번 금융위원회 축구대회 본선 진출 핵심 요인으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꼽았다.

예보 축구동호회는 정기적인 모임 장소와 시간을 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 스카이프utsal장을 장기대 관해 매월 2회, 동일한 장소에서 1회당 평균 2시간씩 풋살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소 예약이나 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보 축구동호회는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친선 축구와 풋살 경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장소와 인원 섭외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예보 직원들에게 동호회는 편안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 “재미있고 신나게 즐길 당신, 내 동료가 돼라!”

축구동호회에 가입하려면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했다. 이에 축구동호회 주장 김치현 차장은 우수한 축구 실력이 동호회 가입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구를 잘하지 못해 동호회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축구를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해도 실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요. 축구나 풋살에 관심이 있고 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누구든 환영입니다.”라고 덧붙혔다.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예보 축구동호회 회원 수가 늘고 오랜 시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훈련을 위한 정기 모임, 친선경기를 위한 연습경기 등을 통해 세대, 직급, 부서 간 격차를 뛰어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동호회 회원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구성원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예보 축구동호회 가입을 추천한다. 예보 축구동호회 가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축구동호회 총무(이은빈 선임조사역, 임건우 선임조사역, 김지환 선임조사역(종결TF))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형제의 나라하면 튀르키예? ‘몽골’도 있다! 한·몽 양국간의 뿌리 깊은 교류 이야기

한국과 몽골, 유사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국과 몽골은 인종과 언어, 문화에서 유사점이 많다. 한반도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지리상 몽골과 가까웠고, (반론이 있지만) 우리 언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점, 영어식 표기인 칸(Khan)의 몽골어 발음이 한(韓)으로 ‘왕’을 뜻하는 점(칭기즈칸 사후 몽골제국이 ‘오고타이 한국’ 등 4한국으로 나누어짐) 등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유사점들이 있다. 이러한 데서 오는 동질감 때문일까. 우리에게서 몽골의 침략을 받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0세기의 냉전시대를 지나 1990년 수교 관계를 맺은 이래 활발한 경제·문화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몽골에서는 한국을 ‘코리아’ 대신 칭기즈칸 시대부터 ‘Солонгос(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려왔다. 최근 몽골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울란바토르 거리에서는 한국에서 진출한 다양한 카페, 편의점과 한식당들, 그리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몽골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 몽골에서는 “22번째 아이막(몽골 행정구역 단위로 총 21개)이 한국에 있다”는 농담도 나온다. 유학, 기술연수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템을 얻고자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 비빔밥, 떡볶이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김치는 건강식으로 여겨져 많은 몽골인이 즐겨 먹고 있다. 또한, 몽골 전통음식인 호쇼르와 비슷한 한국 만두를 찾는 몽골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K-Pop과 한국 드라마도 몽골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몽골의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음악과 패션을 소비하며, 두 나라의 문화적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몽골이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니 오래다. 넓은 땅, 초원, 그리고 쏟아



지는 별.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광을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인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진 전원이 10주년 기념으로 몽골여행을 다녀오면서 몽골여행 열풍에 더욱 불을 지피기도 하였다.

글로벌 교육센터에 게르가 나타났다? 한·몽 예금보험공사 간 교류·협력 이야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총주 글로벌교육센터를 방문하면 눈에 띄는 독특한 시설이 하나 있다. 바로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인데, 이는 최근 몽골 예금보험공사(DICoM)가 공사에 기증한 것이다.

몽골의 전통적인 가옥인 ‘게르’는 몽골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여전히 많은 몽골인이 게르에서 거주하고 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몽골 가구의 약 40%가 게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몽골의 유목 민족적 전통을 이어 가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과거 몽골 금융당국은 한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몽골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부터 2013년 DICoM 설립 이후에도 지금까지 연수와 자문을 제공하며 DICoM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DICoM은 이에 대한 사의를 표하며 양 기관 간 우호의 상징으로 게르를 예금보험공사에 기증했으며, 지난 9월 10일 예금보험공사와 DICoM 임직원들이 모여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몽골인들이 게르를 선물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행위를 넘어, 진심 어린 환대와 우정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한·몽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9월 9일 서울시 중구 예보 사옥에서 인력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2014년 최초 체결). 이번에 갱신된 MOU에서는 특히 양국에서 영업 중인 부보금융회사의 정리에 대비해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경간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에 몽골 금융감독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DICoM에 대해서도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등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DICoM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Mongolia

- 설립 : 2013년 7월
- 직원 수 : 62명
- 부보금융회사 : 12개 상업은행
- 보호한도 : 2천만 투그릭(약 800만원)
- 인력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14년~)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 직원들 한자리에 모이다 제10회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최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예금보험공사 서울 본사와 충주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이 개최되었다. 올해 프로그램은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그룹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4일간의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GTP프로그램
영상보기

KDIC GTP

전 세계 유일한 예보기구 대상
교육 프로그램

10th

2017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0번째 개최

4개 대륙 25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등
예금보험 기구 임직원 41명 참석

YouTube

참석하지 못한 국가의 예보기구를 위해
연수 영상 제공

Risk Analysis & Risk-Based Premium System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진행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개별연수
프로그램 운영

45개국 819명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45개국 819명 참석

예금보험공사+충주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충주시와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세계 유일의 예금보험 교육 프로그램

예금보험공사의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GTP)은 전 세계 유일한 예금보험기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금보험제도 도입·발전에 대한 해외 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KDIC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해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구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일, 가나, 말레이시아 등 총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특히,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Risk Analysis & Risk-Based Premium System)’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강연과 참가국의 사례 발표 그리고 그룹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첫날 오전에는 월드뱅크 Stuart Yikona 서울금융혁신센터장이 월드뱅크의 역할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오후에는 일본



예금보험공사 Hiroaki Kuwahara 조사국제부장이 일본의 결제성 예금 전액보호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였고, 이어서 우리나라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이윤석 박사가 한국 금융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한 바베이도스 예금보험공사 CEO인 Carole Eleuthere-Jn Marie는 “바베이도스와 같이 자원이 한정된 국가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배운 지식과 경험은 바베이도스 예보에서 제가 할 역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통해 리스크 관리 노하우 전수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2일~3일 차에는 주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강의와 사례 발표, 그룹 토론이 이어졌다. 첫 순서로는 한국의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검사업무,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저축은행업권 예금 모니터링 시스템(DMS) 도입과 SVB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어 참가국들의 사례 발표와 그룹 토론(Peer Benchmark)을 통해 각국의 리스크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리스크 모형을 적용해보는 사례 연구(Case Study)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해외 예금보험기구가 전시 상황에서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금 유출을 최소화한 위기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교육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충주시와 ‘예금보험공사-충주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각국의 참석자들에게 충주시의 역

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이 아닌 한국의 또 다른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경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의 예보기구를 위해 녹화 동영상을 제공하여 더 많은 전 세계 예보기구 직원들이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별도로, 예보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개별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타지키스탄과 라오스의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아세안대표부의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인니 자카르타 소재)와 협업하여 2025년 중 아세안 역내 예보기구 대상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선도적 예금보험기구로서 IADI의 핵심준칙과 예금보험제도 관련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예보제도 정착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 금융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민간 부문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3년간의 성과



영상보도자료
바로보기



사례1

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보고(1→7)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사례2

해외 거주 중인 B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1,2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았으나, 누구로부터 왜 그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꼭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기억하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와 도입 후 3년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도입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송금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잘못된 송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38,549건, 74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신청받아, 이 중 10,793건, 134억원의 잘못 송금된 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서비스 이용 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고액 착오송금 사례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잘못 보낸 돈 77건, 총 19억원을 추가로 되찾아 드렸다.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은 평균 70만원 절감하면서 돈을 되찾는 시간을 97일 단축할 수 있어서 빠른 해결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되찾기 서비스' 성과



'되찾기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연 1회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령층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는 신한EZ손해보험과 협력하여 업계 최초로 착오송금 반환지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이 상품은 '신한 슈퍼 SOL 금융안심보험'으로,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제도 시행('21.7월)	
· 지원 한도	1천만원
· 지원 횟수	연 1회
· 지원 방법	PC, 본사(서울) 접수



개선 사항	
5천만원('23년)	추가 상향('25년 예정)
횟수 제한 폐지('24년)	
+ 모바일('25년 예정), 지방 접수('24년)	

이용하는 경우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보전받게 된다. 기존 수수료는 평균 송금액의 약 4%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여, 이체 시스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보완·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금이체가 가능한 196개 금융회사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고객들이 착오송금을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하였다.

모바일뱅킹상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❶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방지
❷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 금액 입력 실수 방지
❸ 입력한 계좌 예금주명·금액 일치 여부 확인창	▶ 목록에서 선택·입력한 계좌정보 확인
❹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 계좌번호·예금주·금액 일치 재확인
❺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 최근 송금이력, 이중입금 등 알림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음주 후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류병의 보조 라벨을 활용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융소비자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예금보험공사는 3년간의 '되찾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5년에는 지원 한도를 추가로 상향하고 모바일 앱을 새롭게 오픈하는 등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운영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및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접수 창구

-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 상담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



KDIC 이웃을 소개합니다③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디딤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파트너로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1월에 설립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9년 4월 1일부터는 사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며 그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기금운영을 담당하며, 주요사업으로 정책자금 지원, 수출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강석진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힘찬 도약, 함께 뛰는 중진공'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과 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 및 글로벌화, 그리고 지역소멸·기후위기·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점 추진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사업이 전문성 있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의 혁신 체계를 다잡고, 신속한 재정집행과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빈 일자리 및 근로인력 부족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정본부와의 협업 관계 구축, 베트남 우수SW 인력활용 지원책 등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신규 출범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역할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 사업 추진, 동반성장 네트워크로 신규 도입, 민간 주도 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신규 추진 사업) 찾아가는 도약 (Jump-up)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힘찬 도약, 함께 뛰는 중진공'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기업 100개사를 선발하여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미래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과정을 밀착 관리 하는 디렉팅, 스케일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 동안 집중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아가는 중진공

202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 현장과 정책을 잇는 소통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중진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진공 TV
바로가기



도약(Jump-up)
프로그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찾아가는 도약 서비스'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는 고령층과 지방 거주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광주지역본부에서, 6월과 9월에는 대전지역본부에서, 3~10월에는 부산지역본부와 부산동부지부에서 회의실을 제공하여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9월 30일 업무협약에 따른 활동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도 함께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금융교육 등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년CEO 금융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라면, 먹으래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에 대하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 있다.

바로 라면을 끓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하나

더 끓일까?”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 “아니, 난 한 입만 먹을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끓여준 라면이라

하지 않았던가. 한 입만 먹으려

했던 사람도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

라면이 뭐길래, 20년 우정도 금이 가게 만든다.

라면을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을까? “쫄깃쫄깃 오동

통통 ○○ ○○○”,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 ○○○”, “일요일은 내가 ○○○○ 요리사.” 라면하면

누구나 떠올릴 법한 CM송이 여럿 있을 정도로, 라면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조리법 덕분에 한 끼 식사로 가능하고, 짜장라면, 볶음라면, 비빔면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프는 국물 요리의 만능 치트키로, 면사리는

여러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 그야말로 매력 넘치는 라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



한국 라면의 탄생

중국이나 일본식 ‘라멘’이 아닌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인스턴트 봉지라면’은 1958년 일본의 모모후쿠 엔도가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떠한 계기로 들어왔을까? 때는 한국전쟁 이후 식량난에 허덕이던 1961년, 보험회사의 사장이었던 전중운 씨는 어느 날 남대문시장에서 ‘꿀꿀이죽’을 사러 강통을 들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보았다. 꿀꿀이죽은 당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을 끓여 만든 것으로 ‘유엔탕’이라고도 불렸는데, 담배꽂초나 씹다 버린 껌, 깨진 단추 등이 나올 정도로 영양과 위생 면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꿀꿀이죽을 먹어본 전중운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국민이 당장 먹을 게 없어 이런 것을 먹는데 지금 보험이 대수인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된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른 음식이 바로 일본 연수시절에 보았던 봉지라면이었다. 전중운 씨는 그 길로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묘조식품에서 라면 제조기술을 전수받는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시행착오 끝에 1963년 라면 제조에 성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라면의 시초인 삼양라면이다. 당시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10원이었다.

라면 얼마나 먹니?

세계라면협회(WINA)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라면 소비량은 총 1,200억 개에 달한다. 한국은 약 40억 개로 중국(422억 개), 인도네시아(145억 개), 인도(86억 개) 등에 이어 8번째의 소비량을 기록했는데, 1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계산할 경우 평균 78개로 베트남(83개)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삼양식품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한국 라면 수출액은 약 10억 2,000만 달러로, 2023년보다 약 30%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24년 11월 초,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으로, 수출액은 2억 1,5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 미국(1억 8,000만 달러)과 네덜란드(8,000만 달러)가 주요 수입국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이 매운맛을 선호하는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농심의 ‘신라면’의 인기도 꾸준하다. 특히, ‘신라면 블랙’은 2020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라면의 면은 왜 꼬불꼬불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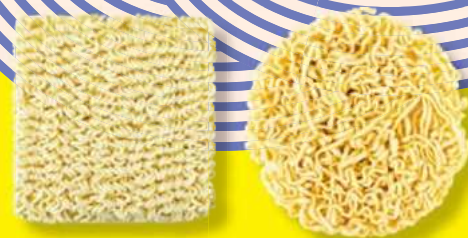
라면 면은 밀가루와 물 등을 섞어 만든 반죽을 기계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휘어지게 된다. 이는 제면기의 속도와 면을 받는 기계의 속도 차이 때문이다. 꼬불꼬불한 면발 가닥은 100℃ 이상의 스팀 기계를 지나며 익고, 이후 150℃ 기름에서 한 번 더 튀겨낸다. 두 번의 익힘 과정은 면의 식감을 쫄깃하게 하고, 국물과 양념을 잘 흡수하도록 만든다. 또 직선인 면발보다 젓가락을 사용해 집어 들기도 편하게 된다.

면발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포장과 부서짐 방지이다. 이렇게 꼬불꼬불한 형태로 면을 만들면 포장지 안에 더 많은 면발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으며, 면발이 부서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라면 한 봉지에는 약 100여 가닥의 면발이 들어가며, 한 가닥의 길이는 대체로 40cm 정도 된다.

사각형 vs 원형. 봉지라면 면 모양은 왜 다를까?

봉지라면은 사각형 면 외에 원형 면이 있다. 1963년 삼양라면 출시 후, 1982년 너구리라면이 등장하기까지 라면 면은 모두 사각형이었다. 그러나 원형 냄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농심은 최초로 냄비에 딱 맞는 원형 면을 개발했다. 원형 면은 사각형 면과 달리 모서리가 잘리지 않아 냄비 안에서 고르게 익히기 좋고, 운송과 포장 과정에서 부서짐이 줄어들어 생산 효율성도 좋아졌다.

그렇다면 면 모양에 따라 맛 차이가 있을까? 사각형 면은 스팀 처리 후 바로 사각형 용기에 튀겨지며, 이 과정에서 면에 전분이 남아 쫄깃한 식감을 준다. 반면, 원형 면은 전분을 씻어낸 후 원형 용기에 담아 튀긴다. 이로 인해 원형 면은 전분이 제거되어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제조 과정에서 면의 특징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라면과 찹떡궁합 음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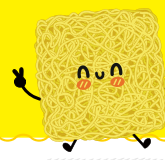
라면을 더욱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즐기려면 신김치, 달걀, 양파, 양배추 등을 곁들이면 좋다. 숙성된 신김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라면의 감칠맛을 극대화하고 식이섬유, 유산균, 비타민 등 라면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준다. 하지만 둘 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스프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 달걀은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해 고소한 맛을 더해주며, 특히 매운 라면과 잘 맞는다. 달걀을 먼저 풀어서 끓는 라면에 넣어주면 특유의 비린맛도 줄일 수 있다. 양파와 양배추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의 체외 배출을 도와주며, 특히 양파는 혈액 속의 불필요한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케르세틴이 풍부하다. 라면을 먹은 후 입가심으로 콜라를 먹는다면 인산 성분이 칼슘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게 되니, 콜라 대신 우유를 마시면 라면의 매운 맛을 잡으면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다.



면 먼저 vs 스프 먼저? 이제 고민 끝

이론적으로는 물이 끓기 전 스프를 먼저 넣으면 염분 때문에 끓는점이 올라 3~4℃ 정도 높은 상태로 면을 끓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면의 전분 구조가 덜 풀려 더 쫄깃해진다. 하지만 한 라면 업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론과는 달리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면이 특별히 더 쫄깃해지는 효과는 없다고 하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 끓는 상태에서 스프를 면보다 먼저 넣는 것인데, 순간 끓어오름 현상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프의 맛과 향이 급격히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따라서 면을 먼저 넣고, 면이 익은 후 스프와 후레이크를 넣는 것이 더 안전하고도 맛있게 라면을 즐기는 방법이다.

RAMYUN FESTIVAL



우리나라에 라면축제가 있다고?



라면축제 영상보기

흔히 지역 먹거리 축제라고 하면 벌교 꼬막축제, 임실 치즈축제, 금산 인삼축제와 같이 대개 그 지역 특산물이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전국 어느 마트에 가도 동일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으로 만날 수 있는 봉지라면으로 야심차게 축제를 여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경북 구미시다. 인스턴트식품답게 축제도 공업 도시에서 열린다. 하루 생산량만 500만 개, 신라면 생산량의 75%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의 라면공장(농심)이 바로 구미에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구미 라면축제는 구미역 역전로에서 개최되었다. 축제 첫날인 11월 1일, 라면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담기 위해 예보 크리에이터 직원들이 나섰다. 구미역에서는 대한민국 라면봉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전시회에는 라면봉지 수집가로 유명한 거제도의 이성철 씨가 1980년대부터 수집한 300여 개의 라면봉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갯튀긴 라면' 판매 부스였다. 신라면, 짜파게티 등 인기 라면 5종을 판매하는 이곳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참지 못하고, 부스 한 칸에 비치된 라면 조리기로 달려가 신라

면 봉지를 뜯었다. 보글보글 끓어가는 라면을 보며 한강 라면이 부럽지 않다고 감탄했다. 똑딱 한그릇을 해치운 뒤 "한봉지 더"를 외치며 그 자리에서 봉지 하나를 더 뜯었다. 갯튀긴 라면의 백미는 생라면이라더니, 과연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단연코 일품이다. 라면의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레시피에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라면에 진심인 전국 각지의 고수들이 다양한 라면 요리를 선보였다. 칠리라면타코, 한우곱창스리라면, 콩나물콩나물쌈가오리라면 등 독특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19개의 라면요리가 관람객들을 기다렸다. 크리에이터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애 메뉴는 바로 브랏부어스트짜장라면이었다. 라면을 계속 먹다 보니 입에 물린 것 같았지만, 짜장라면 한입에 혀는 또 다른 신세계를 경험했다. 그 위에 올려진 소시지와 짜장의 궁합도 완벽했다. 축제 기간 가장 많이 팔린 메뉴는 '치즈돈까스라볶이'였다. 대중적인 재료들의 조합 덕분에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라면공작소'에서는 나만의 라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포장지를 스티커로 꾸미고, 면사리와 원하는 스프, 토핑을

담아 밀봉하면 나만의 라면봉지가 완성된다. 현장에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배가 부른 이들에게는 집에 가져가서 언제든 즐길 수 있어 더 좋았다.

지역마다 먹거리 축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바가지 요금이나 행사진행 미숙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도 늘고 있다. 하지만 구미 라면축제는 대체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메뉴로 관람객들의 만족을 얻었다. 갯튀긴 라면조차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판매되었고, 많은 진행요원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는지, 올해 축제에는 17만 명이 방문하며,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갯튀긴 라면은 작년보다 5배 많은 25만 개가 판매되었다.

구미 라면축제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축제다. 내년에는 라면 공장 견학 프로그램도 고려 중이라, 갯튀긴 라면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색다른 축제를 찾고 있다면, 구미의 라면축제를 강력히 추천한다.





법과 원칙 기반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철 상임감사

공사가 금융안전망으로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업무집행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사에 대한 조언자이자 감시자로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임 2년 차가 지나고 있는 상임감사를 만나 감사의 역할과 그간의 개선 노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최근까지도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횡령 등의 사고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사고 발생은 평판과 조직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고, 나아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와 같이 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내부통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사는 '22년 12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사장-상임감사 공동선언문을 선포한 이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3선 방어체계(사업부서-내부통제실-감사실)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매뉴얼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심사 최우수기관(2년 연속 A등급), 공직복무관리 유공(대통령 표창, 금융위원장상, 기획재정부장관상)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감사실의 이러한 성과는 비단 감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임직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예방을 위한 감사실의 활동에 공사 임직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청유청(源淸流淸)이라는 말처럼, 상임감사인 저와 감사실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자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는 관련 규정의 모호성이나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임 회피를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이러한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상임감사의 생각은 어떨까.

“감사환경은 과거 규정 중심의 합법성 감사에서 원칙 중심의 성과감사로, 사후 적발적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의 역할도 감시자나 통제자가 아닌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조언자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사 감사실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사전컨설팅〉과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실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을 추정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의 말처럼, 감사실은 '23년 장애인 유도팀 창단(인사지원부), '24년 수익계약 시 통합서류 활용(재무관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통합운영(내부통제실)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공익증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서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감사실의 〈법과 원칙 기반의 업무 수행을 견인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개별 부서와 감사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상임감사는 다음과 같은 바람을 밝혔다.

“직원분들께서는 어려워 마시고 감사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수행의 조언자로,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빛이 나는 콜라보



예금보험공사는 예보TV(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 예금자보호 제도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등을 대외에 홍보하고 있으며, 국민 경제와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한들 국민들이 외면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플랫폼의 특성상 재미있어야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늘텐데, 딱딱하고 어려운 소재만 가지고는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해도 관심받기가 어렵다.

이에 예보는 Z세대 중심의 크리에이터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수협은행(이하 수협)의 유튜브 홍보 활동에 주목하고, 문을 두드렸다. 수협의 크리에이터들은 트렌디한 감각을 겸비한 현직 은행원들로, 유튜브 출연에 거부감이 없으며, 기획과 제작에도 직접 참여해 수협 채널의 흥행을 이끌고 있다.

올해 8월, 예보와 수협은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서로간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한 콜라보 영상을 제작하여 양 채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보와 수협 미혼남녀가 출연하는 '나는 SOLO', 예보 직원의 수협 창구업무 등 체험, 수협 직원의 예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민원 응대업무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안되었다.

이후 실제로 수협 직원이 예보직원과 함께 맛집을 탐방하는 콘텐츠, 착오송금을 한 수협 직원을 예보 직원이 도와주는 콘셉트의 콘텐츠를 숏츠로 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충주 글로벌 교육센터에 설치된 '게르'를 함께 방문하여 즐거운 게임을 하는 콘텐츠도 최근 공개했다.

예보는 수협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 크리에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상 친화적인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1기 크리에이터 모임을 구성했다. 예보 직원 12명과 SNS 기자단 2명으로 이루어진 1기 크리에이터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을 지속할

국민 경제와 금융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예보TV와 수협은행 크리에이터들이 손잡았다.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예정이다. 이번 크리에이터 선발을 통해 섭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드소마 인 충주 영상보기



신입사원 인터뷰 영상보기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2024 상반기 신입직원

2024년 상반기 신입직원들이 입사했다. 회수기획부 자산매각팀의 금재은 조사역과 준법경영실 준법지원팀의 조성용 조사역이 전하는 포부를 들어본다.



금재은



조성용

“유연하고 열린 조직 분위기 기대돼요!”

회수기획부 자산매각팀 금재은 조사역



회수기획부 자산매각팀에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의 담보와 신탁자산 등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선입견으로 조직의 분위기가 딱딱하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입사 후 선배님들과 소통하며 조직이 유연하고 열린 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공익에 보탬이 되는 일 하고파요”

준법경영실 준법지원팀 조성용 조사역



준법경영실 준법지원팀에서는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 소송의 승인과 소송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예보에 입사하게 되면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 전 예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그 좋은 기억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KDIC NEWS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추진

예금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가 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28, 예보료를 상한 0.5% 2027년말까지 연장 예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보험료를 한도 존속기한 연장

2024년 8월말 만료 예정이던 예금보험료를 상한(0.5%)의 존속기한을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8.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직전 제21대 국회부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드디어 맺은 것이다. 이번 예보법 개정안에는 소급효 규정을 두어 법이 존속기한을 경과하여 시행되더라도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금 수입이 연간 8천억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틀이 되는 기금을 탄실히 쌓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26, 예보의 가상자산사업자에 직접 자료요청 권한 담은 예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료제공요구권한 확보

9.26일에는 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접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보관 및 대여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은닉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가상자산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제1부 의장 선출

예보는 2024.10.1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연차총회에서 제1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IFIGS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국제협력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29개국 34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예보는 이번 선출로 2025년 제1부 의장, 2026년 의장, 2027년 제2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제5사단 방문 군인 경제교육 실시

예보는 11.5일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 장병 대상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예보는 육군본부와 2023년 '육군장병 대상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연간 약 200회 이상의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보가 제작하고 있는 '경제마음의 편지(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방송인 이혜성이 함께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클린페어 개최 매각성과

예보는 파산자축은행 자산을 일괄·동시·집중 공매하는 클린페어 실시(7~10월)와 매각설명회 개최(7.19)를 통해 부동산 4건, 미술품 4개작 등 총 412억원을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최근 매각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도, 과감한 시도로 잠재매수자들의 관심을 끌고 상세한 매물 정보 및 권리분석 등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준 것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예보는 자산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잔여 자산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KDIC NEWS



영상보도자료
보기

직거래장터 개최

예보는 10.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정문에서 농어가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2024 하반기 '행복예감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다. 이번 장터에는 충주(예보 연수원 소재) 농가 등 16곳이 참여하였으며, 예보는 이날 구매한 농수산물을 행복예감 꾸러미로 제작하여 전국 각지의 서른다섯개 복지시설에 기부하였다. 직거래장터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실시한 예보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업으로, 그동안 총 259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5억 3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공사가 구매하여 기부한 농산물도 약 3억 6천만원에 이른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예보는 학계 및 금융업권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11.28(목) 본사 청계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하여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보는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제고하고, 평가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잠재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공청회 결과와 금융회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 KDIC
뉴스보기

AI아나운서 도입

예보TV(예보 공식 유튜브채널)에 혜성처럼 등장한 AI아나운서 에일리(Eilee). 에일리는 'AI 휴먼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인물로, 실제 사람과 같은 외모는 물론 감정적 요소를 결합시킨 가상의 정체성(virtual identity)을 가진 캐릭터이다. 예보는 올해 7월부터 디지털 기반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AI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영상 보도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모바일 영상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읽는' 보도자료에서 '보는' 보도자료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박람회 참가

예보는 11.13일~15일 정부 혁신 성과 등을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주제로 참가하여 독립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관람 및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다. 1,057명이 부스를 방문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광고를 통해 되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어 현장 접수를 하신 분도 있는 등 박람회 참가로 '되찾기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기회가 되었다. 또한 예보는 서울시 등 8개 지자체 보유 미디어보드 31개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되찾기 서비스'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카페인이 각성시킨 경제와 금융

17세기 유럽
커피하우스 이야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커피가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 물에 타 마시는 지금의 '커피' 형태는 15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오스만 제국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이 행! 이 맛!

당시 유럽인들은 시커먼 커피를 '사탄의 음료', '악마의 유혹'이라고 간주했지만 금세 커피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맛있는 걸 이교도들만 마시다니!

내가 축성했으니 이제 안심하고 마시거라-

아호

이제 커피 마음껏 마셔도 된대!

오죽하면 커피를 맛본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에 세례를 내려 '기독교도 음료'로 승인해 줬을 정도...!

술집에 모여 진탕 취하던 유럽의 사교 문화는 카페 문화로 빠르게 대체되어 곳곳에 커피하우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7세기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 베네치아, <플로리안>

술보다 건강하고 좋구만!

17세기 후반 템즈강 연안의 커피하우스 '로이즈 (Lloyd coffee house)'도 그 중 하나로, 매일 템즈강을 오르내리는 선박 소유주들과 무역상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매일 배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으니...

이런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커피하우스 주인 로이드는 손님들을 위한 소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입항 출항 시기도 넣고...

보험가입 대기 선박 리스트도 넣고...

이 소식지가 훗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로이즈 보험그룹'의 시초가 된다.

당시는 영국이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대서양 상권의 중심이 된 시점으로 해상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때였기에

선박보험 배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

해상보험

적하보험 선적한 짐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

해상보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상사고의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잘 계산해서 보험금을 산정하자.

이익

손실

이를 위한 정보가 공유된 곳이 해상물류의 중심이었던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였다.

여기 slip 좀 써주세요.

커피하우스 주인에서 보험중개인으로 변신-

slip: 보상내용을 약속하는 종이 오늘날 보험청약서의 원형

이후 세계적인 보험그룹으로 성장한 로이즈 그룹은 타이타닉의 침몰 사고 보험을 전액 배상하기도 했다.

배상금만 100만 파운드!

전문학적 비용이지만 고객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1912년 4월 1,513명 사망

보험 거래 외에도 주식거래 또한 커피하우스에서 이루어졌는데 런던 조너선 커피하우스가 현재 런던 증권 거래소의 모태다.

유대인이라 왕립거래소에서 쫓겨 났으니 장외 거래를 할 수 밖에...

Jonathan's Coffee House

커피하우스에서 모이자!

할리 혜성을 발견한 과학자 할리, 커피하우스에서 발표와 토론을 즐겨

애덤스미스, <국부론> 커피하우스에서 집필

뿐만 아니라 과학과 문화도 커피하우스에서 꽃을 피웠다.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시애틀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함께 있다.

수세기 동안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었던 커피하우스, 오늘의 커피하우스에서는 또 무엇이 태어나고 있을까?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특별한 코너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이번 호에는 직원들의 '운동이야기'와 여행기, 에세이를 담아 소개합니다.
직원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어봅니다.

등산의 매력에 빠져~빠져

조사국 정재영 선임조사역

2년 전, 친한 동기끼리 인왕산 등산 후 맛있는 걸 먹으며 시작한 게 아마 어른이 되고 나서 제대로 한 첫 등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 회사에서 받은 트래킹화를 다 같이 신고 가볍게 등산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올라 정상에 도착한 순간 보이는 서울 전망에 모두가 감탄을 멈출 수 없었고, 저는 이후 등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땀 땀도 나고 숨이 차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어느 정도 정상부에 올라가는 순간 조망이 확 트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등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올라오는 동안 하체를 열심히 단련했다면,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과 벅차 오르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되면서 봄·가을이 되면 주말마다 남편이나 부모님, 회사 동기들과 아침 일찍 산에 오르고 내려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게 삶에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하산할 때면 길이 미끄러울까 봐 여기저기 잡고 내려오는 '등린이'이지만, 예비 등린이 분들께 가벼운 마음으로 물 하나 챙겨서 가까운 낮은 산이라도 올라가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등산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술, 크라브마가를 배우다

정보보호실 문지은 선임조사역

운동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제가 2023년도에 크라브마가 무술학원에 등록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수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라브마가는 이스라엘 무술로 칼 빼앗기, 발차기, 복싱, 주짓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기술도 배울 수 있어 실생활에 유용합니다.

다른 운동들과 달리 여러 종목을 폭넓게 배울 수 있어 운동 배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속한 크라브마가 무술학원은 특유의 가족 같은 분위기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딱입니다. 무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 혼자 산다> 진지희 편을 시청한 후 체험 수업을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 연예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자전거 타고 강변 라이딩을 즐겨요!

예금보험교육실 이기정 감사역

친구의 권유로 3년 전, 여의도에서 따릉이를 타고 천호대교까지 라이딩을 했습니다. 강변에서 부는 맞바람과 풍경을 즐기며 온몸이 땀에 젖어 3시간을 들여 집에 도착한 경험을 시작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그때는 너무 힘들어 잠시 포기). 자전거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지만,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평속을 유지하면 주변의 풍경을 즐기며 혼자서도, 가족과 함께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입니다(동호회로 타도 괜찮고 함께 운동하면 좋은 점도 있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앓아왔던 엉덩이와 이상근 통증에서 해방되었고, 다리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강변에서 야간 라이딩을 즐기면 힐링이 되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라이딩 후 체력이 점점 강화되고, 라이딩 거리가 늘어날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할 때는 봄과 가을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질주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요즘 자전거 가격이 많이 내려서 구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적극 추천드려요. 한 번 도전해 보세요!



Perfect Day in Tokyo

금융정리부 서승원 팀장

도쿄. 아침 일곱 시. 어젯밤에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다. 다행이라 할까, 이미 8월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늘 혹은 내일까지 히라야마平山の 흔적을 찾아다닐 것이다. 영화(Perfect Days)대로라면 히라야마가 사는 곳에 아침 다섯 시 쯤에 도착해서 것처럼 자판기 캔커피를 뽑아 마시고, 영상만큼이나 음악을 잘 쓰는 빔 벤더스 감독이 엄선한 OST를 들으며 그의 일터를 찾았을 것이다. 도쿄에 수십 번째지만 히라야마가 사는 카메이도亀戸를 가본 적은 없다. 호텔에서 거의 백 분이 걸린다. 그럴 바에야 그가 귀가할 즈음에 그곳에 가기로.

건축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최상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개성을 담아 도쿄 시내에 화장실 열일곱 개를 만들었다. 히라야마는 그 화장실을 청소하며 산다.

신주쿠에서 버스를 타고 요요기 후카마치 공원에 내린다. 안이 환히 보이는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 문을 잠그면 뿌여져서 안에서는 밖을, 물론 밖에서는 안을 절대 볼 수 없도록 설계됐다. 히라야마가 방금 청소한 듯 깨끗한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밖을 보면 노숙자를 연기한 원로 무용가 다나가 민田中眠의 괴상한 포즈가 만져질 듯 투명하다. 문을 잠그면 일순간 바깥이 차단되고 나만의 공간이 된다.



구글맵에 미리 저장해둔 곳들을 찾아간다. 어떤 것은 지하철역 바로 앞이거나, 어떤 것은 지하철을 내려 자전거를 타야 하거나, 버스를 타야 하거나, 심하게는 십시 사십도에 가까운 띄엄 떨어진 아래를 삼십 분 이상 걸어야 하거나.

7월 어느 주말에 광화문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 경희궁의 짙고 푸른 나무 사이에 쏟아지는 햇볕을 올려다봤다. 코모레비木漏れ日. 영화 속 주인공 히라야마는 낡은 필름 카메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가지 사이로 숨어 있다가 수줍은 듯 비추는 햇살의 순간을 담았다.

히라야마가 편의점 샌드위치를 들고 소박한 브런치를 먹는 장소는 하치만궁八幡宮. 일본 전통종교 신도神道에서는 흔한 무운武運을 비는 신사神社중 만형격이다. 이토 토요오伊藤豊雄가 디자인한 버섯 삼형제 화장실 옆 계단을 땀 흘려 올라가면 하치만 숲이 있다. 돌벤치에 앉아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에 땀을 식히며 바람에 흩날리는 햇살을 올려다본다. 8월 한여름 도쿄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물걸레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짓이다. 땀을 닦으며 차가운 녹차를 들이킨다. 아직 10시다.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앞 도로의 작은 공원에 왔다. 오래전 회사가 준 기회로 어학연수를 할 때, 이 동네는 노숙자와 터프(?)한 형님들의 공간이었다. 그 음침한 곳을 “빛과 콘크리트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安藤忠雄가 확 바꿔 놓았다. 그답지 않게 알루미늄으로 걸을 감싸고, 문을 없애고 미로처럼 내부 동선을 꾸몄다. 칙칙했던 동네가 개방적이고 산뜻하게 바뀌었다. 움츠리며 지나던 길을 그의 작품이 등대처럼 밝혀준다.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 Tokyo Toilet Project, “공유共有의 비극” 대신 공공公共의 가치를 세련되게 일깨워주는 노력이다.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와 그 틈 사이 내리꽂는 빛을 애정하는 안도의 작품보다는 갓 대패질한 나무 막대를 등성등성 엮어 햇살이 나뭇결을 따뜻하게 감싸게 한 쿠마 켄고隈研禧의 건축을 좋아한다. 멀리서 봐도 ‘아, 이건 쿠마 거구나’ 할 만큼



그만의 개성이 뿜어 나오는 화장실은 쇼토 공원에 있다.

시부야 쇼토松濤 지역은 도쿄 시내 고급 주택가로 이름이 높다. 화려한 일족을 자랑하는 아소 타로麻生太郎 전 수상을 비롯하여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저택, 누구나 다 아는 배우, 예술가의 집이 모두 이곳에 있다. 그 거창한 동네 한복판 공원에 이 작품이 있다. 남성, 여성으로만 구분된 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가족용으로 다양한 여러 공간을 만들어 놀이공원을 떠올리게 한다. 구석구석 보고 있던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건다. “관광객이신가요?” 히라야마와 똑같은 웃을 입은 할아버지 청소원이 웃으며 나를 본다. “아닙니다. 내가 야쿠쇼상役所さん(히라야마를 연기한 배우 야쿠쇼코지役所広司)에게 청소를 알려준 건 아니에요. 다른 선배가 가르쳐 줬지요.” 나의 당돌한 질문에 친절히 말한다. 그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다.

한참만에 히라야마의 집에 도착했다. 그가 아침마다 애용한 음료자판기는 없었지만, 다른 모든 것이 영화 그대로다. 여동생과 조카를 보내고 눈물 흘렸던 집 앞 주차장엔 그의 것인 듯 작은 화물차가 서 있다. 자전거를 타고 목욕탕에 간다. 쇼토의 고급 저택들과 달리 여기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우리 아파트와 다르게 일본, 특히 도쿄에서 ‘아파트에 산다’라고 말하려면 ‘저는 목욕탕도 없는 공동 합숙소에 살아요’라는 고백의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 동네 목욕탕은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오후 세 시, 문이 열리자 우르르 들어가는 할아버지들과 기름때 녹진한 중년들 사이로 땀자국 가득한

셔츠를 벗고 몸을 씻는다. 어색해하는 나에게 물비누와 샴푸통을 건네며 밝게 웃는다. ‘너, 여기까지 왜 왔니?’라고 묻듯이. 얇은 벽이 높은 천정의 반쯤으로 남탕과 여탕을 나눈다. 여탕에서 들려오는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벽을 넘어 천정을 울리며 짹짹하다.

스미다강隅田川을 따라 내려오는 자전거에 저녁노을이 쏟아져 내린다. 그 길 끝 지하철역 구석에 선술집이 있다. 히라야마처럼 싸구려 소주에 물을 섞은 미즈와리水割り 한 잔과 사백 엔짜리 야키소바로 노곤한 몸에 알코올을 적신다. 몽롱한 눈으로 흐느적 발을 옮긴다. 영화에는 가수 이시카와 사유리石川さゆりが 멋들어지게 노래하던 “스나크 뽀”snack bar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탈리아인과 프렌치가 섞인 비스트로bistro에 멈춘다. 오후 여섯 시, 빨간 등이 켜지고 히라야마가 앉았던 구석에 앉는다. 이 집에 한국 사람이 온 것은 처음이라는 주인 부부의 웃음에서, 아직 남은 이번 여행은 이미 종착역에 섰다.

다음 날 저녁에 도쿄 시내에 나름 강한 지진이 있었다. 이 백년이 넘었다는 술집에서 마시고 있을 때였는데, 테이블이 흔들리고 유리잔이 떨어졌다.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인은 흔들리며 돌고 있는 지구에 얹혀 산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각자의 퍼펙트를 찾아 헤멘다. Perfect한 히라야마의 Days가 보고 싶었다. 『Perfect Days』를 찾아다닌 여행, 이번에도 신세졌습니다. 今度も、お世話になりました。

겨울, 청계천에 비친 슈베르트의 노래

해외재산회수TF 윤성현 팀장

사무실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입니다. 오늘따라 청계천의 움직임이 잿빛 구름을 따라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12월입니다. 만물이 소멸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소멸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순간 가슴이 싸합니다.

이때가 되면 자주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31살에 요절했습니다. 모차르트보다도 짧은 생애였지요. 더구나 그 시기에 비엔나에서 슈베르트가 음악가라는 것을 알아준 사람은 친구 몇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평생 음악회를 한 번밖에 열지 못했지요. 지독히 가난했고,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독신으로 죽었습니다. 불행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의 벽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가 멜로디에 있어서는 절대미학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곡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짧은 생애였지만 600여 개에 이르는 가곡과 8권의 교향곡 등 다작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를 아시나요?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대 역사학 박사 출신입니다. 정규 성악교육 없이 서른이 넘어 데뷔했지요. 그의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를 노래했습니다.

큰 키의 보스트리지가 성큼성큼 걸어와 무대에 섭니다. “방랑하는 것은 물방앗간 청년의 즐거움이라네. 방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의 목소리가 퍼집니다. 생각보다 성량은 작습니다만 딕션과 목소리의 표현력은 제일입니다. 공연장은 이내 조용해졌고 객석의 집중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날 청중의 공기가 유난히 착 가라앉았지요.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는 ‘리트’입니다. 리트란 낭만파 서정시에 음악을 결합한 독일 연가곡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뮐러의 시에 부친 슈베르트의 첫 가곡집이기도 하지요. 주인공은 시골 물방앗간에서 일자리를 잡은 한 청년입니다. 청년은 주인집 딸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곤 그녀와의 열병 같은 사랑을 이루죠. 하지만 이내 더 경험 많고, 더 매력적이고, 더 나이가 많은 연적(사냥꾼)에게 애인을 빼앗깁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청년은 질투하고 좌절하다 결국 시냇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보스트리지는 그 모습이 마치 주인공이 현신한 것만 같았습니다. 피아노에 기대어 쓰러질 듯 노래하다가도, 질투에 사로잡힌 청년의 마음을 대신할 때는 무대 앞으로 나와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분노에 차 노래했으니까요. 꼭 빠져 듣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20번째 곡, “시냇물의 자장가”입니다. 시냇물은 피아니시모로 죽어가는 청년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 눈을 감아도 돼. 지친 방랑자여, 집에 돌아왔네. 이곳 만큼은 변하지 않아. 내 곁에 누워.” 첫 소절을 들으니 울컥해집니다. 그의 비극이 내 가슴에도 칼날처럼 박혔다가 뿔어나갑니다.

공연이 끝나고 음악당 로비에서는 사인회가 열립니다. 관객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서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음악당 앞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제 젊고 순수한 시절의 사랑과 고뇌 그리고 내가 준 상처, 반대로 내가 겪은 아픔, 마지막으로 죄책감, 여러 복잡한 상념들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라서 쓰라렸나 봅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지독한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오늘처럼 부쩍 추워진 이 계절이 느껴지면 한 번씩 떠오르는 그날입니다. 이 겨울, 슈베르트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슈베르트 :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D. 795: 제20곡, 시냇물의 자장가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